모든 경계 근본자리 놓을때 苦 사라져

☞ 19면에서 계속

도 그때뿐이고 답답함은 여전하니 어떻게 하여야 제대로 관하는 것인지 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걸까요?

답 인간에게는 이미 마음을 마음대로 쓰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허락이 돼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자유자재권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이것은 한다, 저것은 못한다, 또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미리 지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이 그렇게 붙어 돌아가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데 말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에너지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담아 가지고 있는 통과 같습니다. 그 통은 마음을 내게 하되 마음을 어떻게 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마음은 자기 몸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몸을 다스리는 데는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 속에 있는 팔만사천의 자생중생들이 내 마음의 신하가 돼서 움죽거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대로 나오는 것에 속아서 자꾸 떠밀려서 되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보는 거와 듣는 거와 냄새 맡는 거와 감각, 지각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잘된 건가, 안 되는 건가 안팎을 다 보고서는 '잘못된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다시 맡긴다면 그것이 정신계로 직접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명도 업보도 다 제거하는 직결의 문입니다. 그리고, 마음 편안한 살림살이를 가져오는 문입니다. 생명의 수명을 좀 길게 한다거나 짧게 한다거나,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역시 거기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결문을 두고도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뭐가 어떻고, 안되고, 이런 거는 되고….' 이러는데 그건 여러분의 살아온 관습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에도 한 찰나에 갔다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이 이 지구 바깥을 못 벗어납니까. 우리가 연못 속에서, 우물 속에서 여기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바다로 못 나가는 것뿐입니다.

모습이 있는 거는 움죽거리는 대로 한계가 있지만 마음이라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에너지 주머니, 마음내는 거, 마음내게 하는 거,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낼 때에 잘못된 거라면 '현재의식의 나는 모르지만 당신만이 올바르고 잘되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아서 새 물로 바꿔 쓰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거는 구정물과 같지만 체가 없는 거고, 되는 것도 체가 없어서 그것이 홀떡 돌아서 현실에 새 물로 바꿔 쓰게끔 나온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왜 자기 주인공을 믿지 못합니까? 근본을 믿어야 마음을 내주고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면서 지혜를 넓히고 다스리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당신만이 지혜를 넓혀가고 이 심부름꾼을 밝게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은가.' 하고 관하신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환겹쳐 살아가기 힘들어요

문 스님, 저는 요사이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왜 이리 사는 게 힘들까요? 저희는 6년 전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주택조합아파트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IMF가 터지고 남편 회사는 망해서 그만두어야했고 아파트 시공회사도 망하여 지금까지도 입주는 커녕 비싼 대출금 이자 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새로 들어간 회사도 해외 매각이 된다해서 그만두어야 하고 지금 살고있는 집도 너무 전세금이 올라 많은 돈을 손해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왜 저희에게는 이런 일들만 생기는 것일까요? 정말로 전생에 죄가 많아서 지금 그 죄의 댓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답 우리가 한 찰나에 뛰어넘지 못하고 닥쳐오는 대로 그냥 당하기만 하면서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을 뛰어넘을 수 있거늘, 어찌 대치를 못하고 그냥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이지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사는 것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말입니다. 내가 대신 밥을 먹어서 여러분의 배가 부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내가 대신 밥을 먹어줘도 여러분은 배고픔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 밥을 제가 퍼먹어야 배가 부르지, 남이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똥눠 줄 수도 없고 밥을 먹어 줄 수도 없고 잠자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깨우쳐 줄 수는 더욱 없는 것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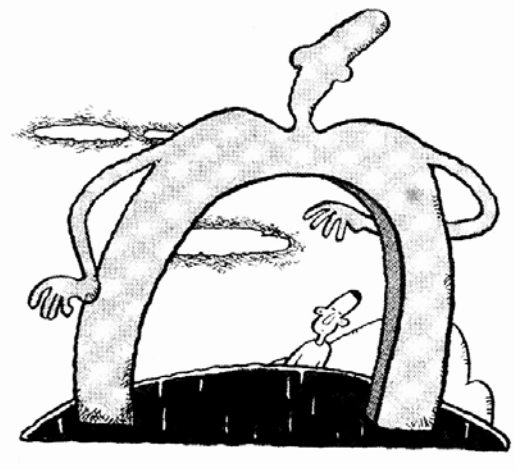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이뤄 완전한 삶 사는게 인생목표
내안의 보배 의지할땐 겁나는 일 없어

기도란 돌로 보고 낮은 자의 입장에서 지금 다가온 팔자와 운명을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고 또 밖으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한다는 것은 평등한 마음으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좋고 참으로 좋지 않은지 중생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모든 걸 한다고 굳게 믿고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체를 근본에 모두 맡기고 나는 묵연히 지켜볼 수 있는 큰 믿음이 생긴다면 마음은 자연히 놓아지게 마련이지요.

그렇기에 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없이 그냥 놓는 겁니다. 거기에 지저분한 꼬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길 수 있다면 거기에 지저분한 무엇이 하나라도 붙을 수가 없지요. 본래 나고 죽음도 없이, 근본에서 영원히 이끌어 갈 터인데 무엇이 거기에 붙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주인공 자리를 확연히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더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아주 급해서 안 될 때에는 '그대가 한 일이니 그대가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하고 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사량(思量)으로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근본에 믿고 맡길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근본 원천으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서 일이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하면 된다더라 해서는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하나 실험하고 체험하는 그 속에 내안의 보배가 분명히 있어서, 그 보배를 믿고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해 나간다면 어떤 일이든 겁이 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진 문제가 물질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하고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는 일들뿐이지만 내가 마음으로 '그래, 정말 이 모든 것을 대처해서 해결해 나가게 하는 것은 당신뿐이잖아.' 하고 진실로 맡겼을 때,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그 길이 안팎으로 밝아지게 되고, 그렇게 내 안의 에너지 주장자를 진실히 믿고 맡길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저절로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게 부질없어 보여

문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으며 무엇 하나 가질 것도 없습니다. 설령 나를 본들 무엇 할 것이며 부처가 된들 뭣하겠습니까? 단지 생명체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업장 아닌 업장에 끄달려서 살다가 이 몸 벗으면 또 다른 연으로 계속 이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은 부자유하고 그나마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아무도 원치 않는 완전한 무(無)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인생이란 길어야 백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때의 영화도 인생이 끝나는 때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막막한 허무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누구나 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 처자, 친지, 지인(知人)들도 자기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오직 자기 혼자서 감당해야만 할 짐입니다. 그런데 죽음만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대표되는, 삶에 있어서의 온갖 고통과 번뇌도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든 자기 혼자서 그것을 견디거나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의 이웃이나 벗들, 가족들이 나의 고통과 번뇌를 덜어 주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산다는 것을 고(苦)라고 하셨습니다. '고' 란 사실 우리가 가장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사상 수많은 선지식들이 뼈저리게 느껴온 인생의 밑바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그런 실제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깨달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삶은 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이지만 인생의 목표는 그 고로부터 벗어나 부처를 이루어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경계를 자기의 중심 자리에 놓아 나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세상을 사노라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수행자는 그것을 놓아 버립니다. 바로 그 점이 수행자와 수행자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닥쳐오는 경계에 매여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거듭 괴로움을 받습니다. 즉, 경계가 닥치니 괴롭고, 그 경계를 들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닦아 나가는 수행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계란 지난날 어느 땐가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요, 모든 행위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법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경계를 무심하게 놓아 버립니다. 이미 닥쳐온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놓아 버린다면 곧바로 녹는 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 본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놓아 나가는 사람은 점점 무심의 경지에 가게 되어 마침내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를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근본에다 일임하고 나는 편안하게 근본만을 의지해서 자유스럽게 살아가라고 하는데도, 어떻게나 이유가 많은지 모두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안의 근본은 잡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여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체를 근본에서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맨날 나는 허망하다고 하고, 허무하다고 하면서 근심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 세상에 걸망 하나 짊어지고 캠핑 나와서 한철 놀다가 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고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는 것인데도 그냥 매사 것을 허무하다고 한다면 안되지요.

내 한생각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두들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허망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자신의 근본에 모든 것을 되맡겨서 어떤 일이든 근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극하게 관하시면서 자유스럽게 좀 살아보세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현대불교신문 합본 6집』 發刊!

현대불교신문에는 큰스님 법문 ·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 생활의 지혜 · 불교문화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내 용 : 2000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252호~300호)
- 판 형 : 신문대판 원형 (40cm×55cm)
- 방 법 : 전화 신청 / 입금 확인 후 택배 발송
- 가 격 : 60,000원 (발송비 : 지역별 3천원~7천원)
- 입금구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 민 023-25-0007-617, 농 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1255243

※ 2001년 2월 10일까지 신청시 발송료 면제

■ 문 의 :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 2001년 1·2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buddhistpromotion.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신년호 특별 설문조사 - 2001 오늘의 한국불교
스님, 불교학자, 종무원, 불교언론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지금 우리 불교계를 주도하는 인물과 단체를 알아본다.

특집 - 한국 불교에 禪은 살아 있는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불교, 특히 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발전적인 모색을 담았다. 간화선 수행이 현대인들에게 맞게 재해석되고 수행법에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으며,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선불교에 대한 역사적 조명, 그리고 토굴에서 정진 중인 수행자를 만나 선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과정을 들어 보았다.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⑥
정허 성우 스님이 쓴 합천 해인사 '퇴설당(堆雪堂)'의 역사적 의미와 서체의 가치를 살펴본다

컬러화보 ① . (사진으로 보는)세계 주요 불교국가의 법구(法具)
티베트의 불교 의식구

컬러화보 ② . 절에 피는 꽃 - 동백화

컬러화보 ③ . 문화탐험 / 문화 속에 담긴 불교의 향기를 만난다 - 인간의 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화가 알렉스 그레이(Alex Gray)의 불교적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불교에서 보는 제3의 수행법, 왜 문제인가
- 동양사상 열풍의 역수입과 함께 들어와 국내에서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아바타, 초월 명상(TM)과 여러 가지 힌두식 명상법 그리고 기공을 선두로 하는 도교 수행법 등 갖가지 수행법에 대한 정면적인 비판 불교 정체성의 혼란과 불교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불교 종단과 불자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촉구한다

서평 / 서양인이 본 산신(山神)
벽안의 저자 데이빗 매이슨이 쓴 『산신령』에 나타난 한국의 산신신앙과 불교와의 관계 및 보살로서의 산신을 알아본다.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buddha do?)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경전에서 해당 구절을 인용하고 그에 대해 짧은 해설을 덧붙여 곤란에 빠진 불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감각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① 낙태문제

인물포커스 근 · 현대 한국 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문학편)
① 공초 오상순 - 영원한 불교인이었던 공초 선생의 무소유의 삶
② 백화 양건식 - 잊혀져있던 불교인 백화 선생의 거사불교운동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 kbpf@chollian.net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